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정은미*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함으로 조부모양육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청소년 손자녀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조모 7명을 대상으로 120분씩 총 6회기에 걸쳐서 프로그램과 1회의 추수모임을 실시하였고, 각 참여자들의 행동관찰기록을 통해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과 개인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은 회기가 지나면서 집단 응집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참여자들이 자기노출, 공감, 문제해결에 대한 협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부모양육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둘째, 개인별 변화는 조부모 자신과 손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두기 보다는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손자녀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손자녀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증진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함으로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코칭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기술을 습득시켰으며, 조손가정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조손가정, 조부모교육프로그램, 청소년기

논문제출일 : 2010. 4. 30.

최종심사일 : 2010. 6. 4.

* 혜천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ng, Eun M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yecheon University, 721, Hanbatdoseogwan-gil, Seo-gu, Daejeon, Korea 302-715. E-mail : os1318@hanmail.net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부모에게 양육되지 못하고, 조부모에게 길러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05년에는 조손가구가 58,101가구로 전체가구의 0.36%로 나타나 조손가구의 증가율은 1995년보다 6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과거에는 손자녀가 고아가 되었을 때에만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지만, 요즘에는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다(오선영, 2006). 이는 현대의 조부모들은 전통적인 권위를 갖고 가장 이상적인 대리모로서 손자녀를 양육했던 것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비어있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한시적으로 부모역할 기능을 유보하거나 장기적으로 부모역할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부모역할을 대신 수행하면서 손자녀에게 지속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가족체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미영, 2007).

조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모에게 또 한번의 부모역할에 따르는 많은 책임이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노인에게는 힘겨울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손자녀 돌봄은 여자노인에게 건강 악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하고, 만성적인 피로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고, 조부모의 학력이 낮고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수준은 손자녀 가족과 동거하는 조모의 경우에 돌봄 만족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영숙, 2010). 뿐만 아니라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재정적인 자원의 부족과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심리적인 건강까지 악화시켜 조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김문정, 2006).

이와 같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에게는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족을 통한 정서적인 지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조손가족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보호요인의 부족으로 보다 빠르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손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세대차이로 인한 가족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조손가족의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조부모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천혜정,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역할에 대한 효능감 증진,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의 습득, 손자녀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 정서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회기별 집단활동 과정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조부모교육프로그램 종료 이후 프로그램 목표(손자녀 양육역할에 대한 효능감 증진,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의 습득, 손자녀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 정서적인 지원)와 관련한 조부모의 개인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조손가정의 특성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조손가정의 특성을 조손 손자녀와 조부모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면,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손자녀의 학교적응, 심리사회적인 문제나 외로움, 스트레스, 적응유연성, 건강상태(류재중·조아미, 2007; 최명선 외, 2008; 김정은, 2008; 김진숙, 2009; 주소희 외, 2009)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김진숙(2009)의 연구에서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사회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스스로 낙인을 형성하였고, 이는 이들의 삶에 큰 장애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반 위탁가정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조부모 세대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세습이나 청소년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잠재되어 있으며, 조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부모역

할을 떠안았기에 청소년의 발달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힘들다. 뿐만아니라 조손가정은 가족해체의 결과물로 간주하고 '결손'이라는 감정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Brow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조손 가정 손자녀는 분노, 당황, 두려움 또는 감추어진 분노로 인한 정서적 문제와 행동문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손가정 청소년은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임에도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청소년은 대체로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에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고 이는 가족관계가 취약하거나 부부갈등이 심각한 양부모 혹은 한부모가정의 빈곤청소년과 비교해 오히려 조부모가정으로 편입된 후 손자녀가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확립된다면 조손가정이 다른 유형의 보호형태보다 가족해체 청소년에게 안정된 보호환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부모의 약물문제, 학대 및 방임, 십대임신 등으로 파생되는 서구사회의 조손가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손가정의 발생배경이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덜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이 주요 원인이고, 혈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우리나라 조손 청소년은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립된다면 건강한 적응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최해경, 2006). 이처럼 조손 가정은 원가정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적응양식으로 받아들이며 일반가정위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에서 조부모와의 애정적 유대는 손자녀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며, 조부모의 애정적 유대가 높을수록 손자녀의 외로움이 낮게 나타나 조부모의 애정적 유대를 높이는 것이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선 외, 2008)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서현, 2009; 최해경, 2006; 이화영, 2006; 윤승희, 2005; 김미혜 · 김혜선, 2004)이 있었다. 농촌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서현(2009)의 연구에 따르면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중병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자신의 손자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야단치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안타깝다고 무조건 감싸주기도 하였고, 반대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엄하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손가정에서 조부모의 이러

한 두가지 양육태도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즉 조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육관이 있었더라도 한 가지 형태의 양육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였고 ‘무조건 감싸주기’와 ‘엄하게 교육시키기’의 두가지 양육태도를 불안정하게 바꾸며 양육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조부모로서 양육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을 호소하였다. 또한 조부모 자신이 가정에서 손자녀에게 직접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부모 자신이 과거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심지어 최근 교육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손자녀들 교육의 직접 개입을 피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부모들은 자신이 양육하는 손자녀들이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무시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힘들어 했으며 주변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또 한번 상처받을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이처럼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기 이전에 손자녀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부모와의 이별경험으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조부모의 양육태도로 인해 발달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손가정 손자녀의 적응은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손자녀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부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김혜선, 2004). 이미 미국에서는 조부모교육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실태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수와 영역에서 시작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옥경희, 2005).

2. 조손가정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고찰

국내의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는 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소수이고,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로는 박정란(2009)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조손가정 아동의 우울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정순상(2008)은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및 조손가족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김영건(2008)은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조손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조손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배진희와 정정숙(2009)의 농촌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었다.

조손가정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는 박혜준(2008)이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총 9회기로 조부모-손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역할극,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부모로서의 자신감 개발을 위한 양육효능감 이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이해를 위한 감정표현, 의사소통기술습득, 갈등해결을 위한 무패방법습득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양육효능감과 의사소통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김홍미와 강영숙은(2007)은 조손가정의 조모를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는데 프로그램 실시 후 조모의 불안과 우울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서혜석(2005)은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는데 이를 위해 8회기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은 자아정체성 및 인간관계훈련, 자녀 양육행동의 이해, 부모역할의 이해, 의사소통의 이해 및 기술훈련 향상, 욕구갈등의 이해 및 의사소통 훈련 향상, 가치관 이해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조부모의 주관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와 지지, 격려를 받음으로 부정적인 정서에서 긍정적인 정서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손가정의 조부모프로그램은 가족보존서비스로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조손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예측변인 가운데 가족관계는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요인으로 나타나(최해경, 2006) 청소년을 둔 저소득 조손가족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 모집과정은 대전에 위치한 H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조모 7명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60세에서 81세까지 조모로 구성되어 있고, 동거가족은 대부분 손자녀와 지내고 있었으며,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수입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손자녀 중에는 청소년기 손자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동기는 자녀의 이혼이 가장 많았다. 손자녀 양육기간도 9년에서 17년으로 대부분 손자녀가 영유아기였던 시절부터 맡아서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정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집단 성원	연령	동거가족	수입	손자녀 연령	손자녀 양육동기	손자녀 양육기간	주거
A	67세	손자녀 1명	60만원	15세	아들의 이혼 및 알콜중독	15년	영구임대 아파트
B	81세	손자녀 1명	90만원	17세	딸의 이혼 및 질병	17년	영구임대 아파트
C	69세	손자녀 2명	70만원	14세 18세	아들의 이혼 및 가출	10년	영구임대 아파트
D	71세	손자녀 1명	14만원	14세	딸의 이혼	10년	전세
E	69세	배우자, 손자녀1명	60만원	19세	아들의 이혼	9년	영구임대 아파트
F	76세	손자녀2명 (쌍둥이)	60만원	19세	아들의 이혼 및 가출	10년	영구임대 아파트
G	65세	손자녀 3명	60만원	20세 19세 12세	아들의 이혼 및 가출	16년	영구임대 아파트

2. 연구절차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는 총6회로 매주 120분씩 진행되었고, 1회의 추수 모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코칭접근을 중심으로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정은미(2010)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원래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총 8회기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 6회기로 재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역할에 대한 효능감 증진,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의 습득, 손자녀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 정서적인 지원이며 조부모들에게 실시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

단계	회기	프로그램명	목표 및 활동 내용
I 도입	1	서로 인사해요	● 목표 ① 집단원들의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동기를 높인다 ② 자기소개를 통해 자신 및 타인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발달시킨다. ③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원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한다. ● 활동 - 프로그램 소개 - 자기 소개/친밀감형성게임 - 변화발견질문 - 별칭짓기-되고싶은 할머니의 모습 - 손자녀양육하며 힘든점 나누기(경청기술) - 희망의 배 :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정하기(동기부여기술) - 규칙정하기, 서약서 - 칭찬과 느낌나누기(피드백기술)
	2	우리 손주를 이해해요	● 목표 ① 손자녀의 발달단계별 특성 및 발달과업을 이해한다 ② 청소년기에 적절한 조부모역할을 습득한다. ● 활동 - 변화발견질문 - 청소년기가 되면서 손자녀의 변화(경청기술) - 청소년기의 특징 설명 - 청소년기의 조부모역할나누기(강점개발기술) - 칭찬과 느낌나누기(피드백기술)
II 중간 단계 -1	3	나의 양육태도는?	● 목표 ① 건강가족에 대해 이해한다. ② 조부모 자신의 양육태도 유형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습득한다. ● 활동 - 변화발견질문 - 가족/건강가족과 연상단어찾기(브레인스토밍) - 나는 어떤 조부모인가?(관점전환기술) - 양육태도에 대한 설명 - 우리 손자녀에게 맞는 양육방법 나누기(강점개발기술) - 칭찬과 느낌나누기(피드백기술)

Ⅱ 중간 단계 -2	4	의사소통기 술을 배워요	● 목표 ①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인식한다. ② 손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한다. ● 활동 - 변화발견질문 - 의사소통의 걸림돌 찾기 - 효율적인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설명(코칭기술의 활용) - 손자녀와의 대화:역할극(강점계발기술, 촉진기술) - 칭찬과 느낌나누기(피드백기술)
	5	해결방법을 찾아봐요	● 목표 ① 손자녀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한다. ②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운다 ● 활동 - 변화발견질문 - MBTI성격유형 설명 - 손자녀와의 갈등상황(브레인스토밍) - 효과적인 갈등해결:역할극(관점전환기술, 강점계발기술) - 칭찬과 느낌나누기(피드백기술)
Ⅲ 종결	6	우리가족이 최고	● 목표 ① 조부모 개인 및 가족의 보호요소를 증진시킨다. ②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애정을 표현한다. ③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그동안 변화된 점들을 나눈다. ● 활동 - 변화발견질문 - 찹흙으로 행복한 우리가족 만들기(관점전환기술, 강점계발기술) - 손자녀에게 영상편지보내기(촉진기술) - 자신에게 상장주기(강점계발기술) - 쿨시트(인정축하기술) - 칭찬과 느낌나누기(피드백기술) - 수료식

3. 분석방법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과정안에서의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과 개인별 행동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2인의 연구자가 매회기 관찰한 집단원에 대한 행동관찰기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 과정 중에 집단원들이 보인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집단에 대한 관심과 동기가 높지 않았으나 3회기 이후부터는 집단응집력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있었다. <표 3>은 집단원들의 행동관찰기록 자료분석에 따라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을 간략히 서술한 내용이다.

<표 3>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

회기	프로그램과정양상
1	집단원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의무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초반에는 자발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별칭짓기를 하면서 손자녀들에 대한 바램을 활발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자기노출을 함으로서 친밀감이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손자녀를 양육하며 힘든 점으로는 손자녀가 부모와 처음 떨어져서 매일 울었을 때와 학교에서 맞고 왔을 때 사춘기가 되면서 대화도 잘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할머니 말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다독여야 할 지 모르겠고, 손자녀 눈치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희망의 배를 통해 손자녀와 대화가 많아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다. 집단회기를 마치면서 속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좋고, 마음이 편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와 닿았고, 감동도 받았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2	변화발견질문은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내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집단원들의 긍정적인 동기가 나타났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손자녀의 변화에 대해 남녀간의 차이를 집단원들이 직접 찾아내고, 서로의 고민에 관심을 갖음으로서 집단응집력 형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회기를 마치면서 손자녀에게 칭찬해 주고 나쁜 말을 가려서 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집단원 각자가 하였고,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것이 관찰되었다.
3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에 대해서 활발하게 나누어 집단의 응집력이 더욱 강화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성공경험을 갖게 됨으로서 집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북돋울 수 있게 되었다. 양육태도에 대한 설명과 손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많이 깨닫고 가슴에 와닿아서 손자녀를 항상 사랑으로 보듬고 필요할 때는 옳은 것을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4	손자녀와의 대화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손자녀에게 욕을 하지 않고 이제는 손자녀가 먼저 교육시간에 참가하라고 챙겨준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의사소통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역할극을 통해 시연해 봄으로서 구체적인 실습의 장을 집단원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
5	손자녀의 성격과 자신의 성격간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손자녀와의 갈등상황을 역할극으로 시연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상황에서 좀더 손자녀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서로 갈등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격적인 손자녀를 둔 집단원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자 집단원들간에 위로와 격려를 하였으며, 손자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수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6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예전같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니까 손자녀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이야기 하였다. 찰흙을 통해 행복한 가족, 화북한 가족, 꽃처럼 아름다운 가족, 우애좋은 가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손자녀에게 영상편지를 통해 사랑한다는 표현과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집단원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에게 상장주기에서는 프로그램의 리더나 보조리더인 사회복지사에게 상을 받고 싶다고 표현하여 집단의 높은 응집력을 보여주었으며, 쿨시트를 통해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표 3>을 보면, 집단 초기인 1회기에는 친밀감 형성이 되기 전까지 지도자의 개입이 많이 요구되었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기노출이 활발해 지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집단원간의 응집력이 쉽게 형성되었다. 중간단계인 3,4,5회기가 진행되면서 집단원들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이 많아졌으며, 손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다. 종결회기에는 손자녀 양육과 이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활용도가 많아졌으며, 집단원간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손자녀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개인별 변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인별 변화는 <표 4>와 같으며, 참여자의 반응이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개인별 행동관찰기록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개인별 양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회기가 지나면서 “감사하다, 사랑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손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청소년기의 발달상 특성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4> 개인별 변화

집단 성원	사전	사후
A	손자녀가 공격적이어서 조모가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정이 어둡고 지쳐있어 보였고, 힘들다는 말을 자주하였다. 손자녀를 시설에 보내야할지 계속 키워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집단원들을 만나서 이야기 한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손자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키워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내내 다른 집단원들로 지속적인 격려를 받았다.
B	초기에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며, 교육을 통한 변화의 동기가 낮은 편이었다.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방해하지는 않았으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손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말을 잘 안해서 답답하다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손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하고 욕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고, 손자녀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C	손주가 기가 죽어있거나 학교에서 맞고 오는 것이 안타깝고, 엄마처럼 자신을 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별칭도 ‘엄마처럼’이라고 지었다. 손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서 폭언과 차갑게 대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변화를 보인 참여자로 손자녀가 조모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감동받고 칭찬하여 변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회기가 지날 수록 적극적인 참여와 자기노출을 활발하게 보였다.
D	손녀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모에게 순종하는 편이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을 많이하고, 화도 잘내고 대답도 잘 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호소하였다. 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큰 편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동기가 높은 편이어서 원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미 손녀의 사춘기를 겪은 집단원의 이야기에 지지와 격려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참여과정중에 손녀가 상도타고 전학한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해서 손녀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E	손자녀가 고1까지는 착했는데 고2부터 사춘기를 겪으면서 말이없고, 친모를 만난 후로는 더 거리감을 갖고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였다. 손자녀와 대화를 잘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손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프로그램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만족스러워하였다. 손자녀를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야겠다는 다짐과 손자녀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F	성격이 단호하고 강직하여 쌍둥이인 손녀들을 엄격하게 키웠고, 잘 자라주기는 했지만 쌍둥이다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미 다 키웠다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기대를 보였고 손녀들이 잘하고 있지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착해졌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로 갖고 있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였으나 회기가 지날 수록 자기노출과 협력적인 자세로 프로그램에 임했다. 영상편지를 통해서 한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손녀들에게 따뜻한 말과 칭찬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G	손자녀가 말을 안듣고, 공부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했고,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손자녀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본인은 그동안 열심히 키웠고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평을 많이하는 편이었다.	회기가 지나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덕이 많이 쌓이는 것 같다, 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안하고 손자를 칭찬해줘야겠다’ 라는 긍정적인 용어의 사용이 늘어나고, 손자를 지혜롭게 감싸안아 주고 싶다는 태도로 적극적인 변화를 보였고, 본인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	--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 함으로 조부모양육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청소년 손자녀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조모 7명을 대상으로 120분씩 총 6회기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1회의 추수모임을 갖았고, 각 참여자들의 행동관찰기록을 통해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과 개인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회기별 프로그램 과정 양상은 회기가 지나면서 집단 응집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참여자들이 자기노출, 공감, 문제해결에 대한 협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부모양육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지도자가 코칭기술을 접목함으로서 조부모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기결정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개인별 변화는 조부모 자신과 손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두기 보다는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손자녀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손자녀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증진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손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손자녀를 둔 동질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자들간의 공감과 활발한 교류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일방적인 교육이나 1-2회의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학력이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집단상담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자기노출과 집단응집력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셋째, 조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발달특성, 성격유형,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함으로서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난 뒤에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저소득층 조손가정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강점을 찾아내고자 코칭기술을 접목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인식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손가정 중 조모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노령인 참가자들의 특성상 설문지를 통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서 연구자가 매회기 관찰한 집단원에 대한 행동관찰기록 자료분석으로만 참가자들의 변화를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첫째, 손자녀의 발달단계특성을 고려한 발달단계별 조부모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둘째, 조부모교육 시 행동관찰기록 분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손가정 조부모들은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원하고 있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저소득 조손가정 조부모를 대상으로 자조집단 모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조손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조부모의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손가정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구축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문정(200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경험.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김혜선(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1.
- 김영건(2008).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조손가정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광신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08). 초등학교 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건강상태와 건강행위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19, 9-44.
- 김진숙(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223-248.
- 김혜선(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18, 85-117.
- 김홍미·강영숙(2007). 조손가정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회발표자료집, 383-117.
- 류재중·조아미(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모형 적합도 검증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49-69.
- 배진희·정정숙(2009). 농촌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5-28.
- 박정란(20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조손가정 아동의 우울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준(2008).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부모역할훈련프로그램 효과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2009).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어려움.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13-27.
- 서혜석(2005).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0(3), 61-81.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 23(3), 103-114.
- 윤승희(2005). 조부모 가구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전북지역 조부모가구를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2007). 조손가정의 형성과정 및 생활실태, 복지행정논총, 17(1), 201-230.
- 이영숙(2010). 조모의 손자녀 돌봄만족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5-26.
- 이화영(2006).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2, 327-355.
- 정순상(2008). 집단미술치료가 한 부모 및 조손가족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2010). 저소득 조손가정의 조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코칭연구*, 3(1), 5-16.
- 주소희 · 이경은 · 권지성(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0호, 97-131.
- 천혜정(2007). 저소득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에 관한 종합토론.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19-121.
- 최명선 · 최태산 · 이정이(2008). 포스터논문발표 : 조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가 조손가정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134-134.
- 최해경(2006). 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3집, 37-58.

Abstract

A Study on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s to the Low-income Grandparents raising Adolescent Grandchildren

Jung, Eun-Mi*

This research is to enhance effectiveness on the ro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parents, by conducting educational programs for low-income grandparent- grandchildren family having adolescent grandchildren and is to derive a positive change in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with adolescent grandchildren. In order to meet this goal, a total of six sessions of 120 minute program and a conference program targeting seven grandmothers raising adolescent grandchildren were conducted and the patterns of sessional program and individual change were also analyzed by recording the actions of each participants.

This study is concluded as followed: Firstly, a strong group cohesion was formed as sessional programs go on and the participants became co-operative in exposing themselves and expressing empathy, and problem-solving and also participants showed changes in awareness and attitude on grandparents parenting role in this process.

Secondly, this individual changes resulted in growing understanding between grandparents and their grandchildren and showed a subject attitude that they must change themselves rather than the cause of the problem comes from outside and enhanced understanding on the adolescent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ir grandchildren, appropriate communication methods with grandchildren, and awareness and skills on conflict resolution.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wa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y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stage in executing educational programs for grandparent- grandchildren families, and to present parenting skills needed to care for their grandchildren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using coaching skills, and finally to lead out a potential of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Key Words :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educational program for grandparents, adolescence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yecheon University.